

**텍스트해석학적 관점에서 한국전통공간의 유형해석에 관한 연구

- 현대적 디자인 적용을 위한 엘름슬레우의 구조주의 이론과 라캉의 무의식적 구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Space in terms of Text Hermeneutics

- Focusing on Hjelmslev's Structuralism and Lacan's unconscious structure for contemporary Application -

박경애* / Park, Kyung-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Korean traditional space as text on the basis of Structuralism.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illustrated as follows:

At first, this research contains basic concepts and theories of Structuralism and discusses the possibilities of typological approaches in Korean traditional space interpretation.

Secondly, As typological structure of traditional space, spacial and visual expressive characteristics in traditional residential space based on traditional thoughts of Koreans formed with inherent consciousness are considered with Hjelmslev's Structuralism and Wonhyo's Whajaeng theory.

Finally, This study tries conceptual analysis based on Lacan's Metaphor and Metonymy emerged from unconscious mechanisms about interpretation and induction of the traditional spacial structure for contemporary Application.

Structure is a group of elements forming a covariant ensembl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validates that texts are understood when methods that bring back to the creative processes and intentions are found by Text Hermeneutics.

키워드 : 한국전통공간, 공간텍스트, 해석학, 구조주의, 유형학, 엘름슬레우, 라캉, 은유, 환유, 무의식적 구조, 현대적 적용

Keywords : Korea Traditional Space, Space Text, Hermeneutics, Structuralism, Typology, Hjelmslev, Lacan, Metaphor, Metonymy, Contemporary Applica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민족문화의 국제화는 우리민족의 문화를 국제무대에 내놓으면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화는 우리 문화의 대외적 지향뿐만 아니라 시공간적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요구한다. 즉 시간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의식의 확장을,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세계를 향한 의식의 확대를 요구한다. 전통공간의 현대화는 미래발전을 내다보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통공간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개별가치와 보편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철학과 이론의 전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통건축공간은 나라마다 그 고유의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인습에 의하여 생성되어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각기 독특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또한 건축공간은 역사적으로 진화 발전되

어지는 생명체와도 같이 유형이라는 형식론적 구조를 지니며, 미학적인 의미매개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반하게 된다.

하나의 전통공간의 각 요소의 통합방법이나 구성원리는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 의하여 선택되고 조율되어져 왔으므로,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조형의 원리와 문화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해석되고 통합되는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전통공간의 현대적 실현에 관한 공간적, 조형적 탐색의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요컨대 지역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을 상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구조주의가 겨냥하는 이념 중 하나이다. 파롤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용된 말의 고유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당시의 시대와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저자나 화자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재구축한다는 뜻이다. 낭만주의 이전의 해석학이 순수하게 텍스트의 진리에 직접 매달렸던 것과는 달리,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는 텍스트를 '예술적 사고'로 간주하여, 텍스트생성의 창작과정과

* 정회원, 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디자인학박사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50-G00003)

의도를 밝힐 수 있는 방법들이 발견된다면 텍스트는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¹⁾

본 연구에서는 구조주의 관점에서 건축공간의 유형과 인식적 도구로서 유형의 해석학적 유용성을 살펴보고, 한국전통공간의 유형학적 해석으로서 엘름슬레우의 구조주의 이론과 원효의 화쟁사상에 근거하여, 은유와 환유구조의 문화적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간의 전통해석과 도입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간 해석에 있어, 구조주의 언어학적 관점이 건축 형태의 의미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라면, 구조주의 인류학적 관점은 문화적 맥락과 형태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유형학은 하나의 건축공간현상 내에서 의미와 맥락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와 연관성을 갖는다.

리코르(Paul Ricoeur)는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객관성 내지 규범성을 부여하기 위해 구조주의적 기호분석 방법으로 보충한 종합적 텍스트 해석학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해 본 연구범위는 관계, 차이, 조합, 계열화 등에 의한 대상, 주체, 기호 삼자의 역동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로서의 한국전통공간의 유형학적 고찰로서, 범위를 주거공간으로 한정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 해석학의 과제 중 하나가 텍스트의 '내적 역동성'을 탐구하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구조주의 관점에서 유형과 유형학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식적 도구로서 공간 유형학의 유용성을 고찰한다.

둘째, 텍스트로서 전통공간의 유형적 구조로서, 한반도의 풍토적 특성과 한민족 고유의 의식에 따른 전통주거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적, 시각적 표현특성을 엘름슬레우의 구조주의 논리와 원효의 화쟁사상인 체용상의 원리를 결합하여 구조주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한국전통공간의 유형학적 해석으로서 공간형성의 지표적 원리를 품, 몸, 짓으로 유형화하여 문화적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논한다.

셋째, 전통공간 해석과 도입에 관한 무의식의 언어활동을 해독함에 있어서 라캉의 은유법과 환유법에 의해 무의식의 축을 '근원'으로부터 '작업'으로 돌리는 가능성을 이론화함으로써 한국전통공간디자인에 대한 해석의 접근논리를 형성한다.

2. 구조주의와 유형학

2.1. 구조주의 체계

구조주의는 기본적으로 합리주의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

상들을 넘어서서 그 현상들을 그렇게 나타나게 만든 더 본질적인 차원을 찾는 입장이다. 즉 이 세상에서 확인되는 현상이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본질적인 차원이 고대에서는 형상, 근대에서는 법칙, 현대에서는 구조로 이해된다.²⁾

구조주의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범주를 사용해 작품들을 해석하며, 언어가 만들어지고, 작품이 이루어지고, 생각과 행위가 엮어지는 근원을 발견함으로써, 신화, 시, 철학, 정치 등이 구조적 해석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석의 참된 가치는 바로 오늘날의 작품들을 활성화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으로, 구조주의는 생생한 해석과 창조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³⁾

구조주의에서 언어구조의 흐름과 생성관계의 핵심은 레비스트로스가 파악한 바와 같이 「체계」라는 개념이다. 구조는 관계의 망 속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며 의미의 표상은 구조체계 내에서 형성된다. 구조주의는 「문법체계」의 「통사적 법칙」을 파악하여 「변형의 문법과 질서」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역사주의에 입각한 방법론을 배격하고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현상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초역사적인 불변의 구조를 파악하여 현상들을 인식하려는 것은 결국 어떤 대상을 해부하고 배열하여 이들 요소들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대상의 기능작용의 법칙을 드러내 보이는데 목적이 있다.⁴⁾

구조주의는 발전사관에 의한 문화의 동일화(identification)를 거부하고, 「변별적 차이」에서 역사와 문화를 논한다. 즉 모든 역사와 문화의 우열을 가리면서 암암리에 가치의 동일화를 시도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각 문화가 안고 있는 특이성이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탐구한다.⁵⁾

음소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요소의 여러 항들도 의미의 요소들이다. 또한 이 항들은 음소들과 마찬가지로 체계 속에 편입됨으로써만 의미를 얻는다.⁶⁾

구조주의 언어학의 최대의 공적은 이 문화의 질서가 필연적으로 자의성 변별성 공시성의 구조, 즉 상징적 질서라는 형태

2)이정우, 시물라크르의 시대, 거름, 1999, pp.30-31

3)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pp.522-523 참조

4)철학아카데미, 기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소명출판, 2002, p.77

5)동일화의 실체론에서 다양성의 관계론으로 - 구조주의자들은 서구의 지식체계와 이데올로기가 너무 서양인의 자기중심적, 자기폐쇄적 나르시즘 현상이라고 비판한다. 구조주의 철학이 그 이전의 철학에 대해서 가하는 비판은 유일하다고 여겨온 서구적 이성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이다. 근대·현대 서양철학사는 서양의 합리성과 그것의 보편화가 지구상의 다양한 역사와 생활문화권의 다면성을 자기 기준과 규범에 의해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를 굳혀 놓았다. 서양 백인중심의 문화가치와 사고방식의 제국주의적 우위성에 대하여 감정적이거나 감상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식론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비판의 문을 열게 된 사상가가 레비스트로스이다.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1989, pp.25-29 .

6)프랑스와 도스, 구조주의의 역사, 이봉지 외 역, 동문선, 1991, p.50참조

1)Georgia Warnke, Gadamer: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987, p.14

를 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 데 있으며, 이에 따라 '의미'의 세계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과학적 인식의 대상은 「환유법적」 질서를 갖고 있고, 예술적 인식의 대상은 「은유법적 인식」의 대상을 지닌다. 왜냐하면 과학적 인식은 주로 원인과 결과나 양적대소에 의한 인식의 본질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예술적 인식은 비유에 의한 상징화를 기본조건으로 여기기 때문이다.⁷⁾

예술은 「문화적인 지적 변이」를 통하여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한다. 구조주의는 기호의 빛에 의하여 예술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술창조의 과정은 언제나 구조와 우연의 끝없는 대치 속에서 우연을 넘어 구조의 승리를 구가하는데 있다. 예술작품이 대상의 기호이고 문자 그대로의 재생산품이 아닌 한에서, 예술작품은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갖는 지각에 직접 주어지지 않는 어떤 것, 즉 대상의 구조를 표시하고 있다.⁸⁾

2.2. 구조주의 관점에서의 공간적 유형학

구조주의는 역사와 구조를 대비시켜, 통시적 개념에 근거한 '역사'의 시간적 흐름을 거부하고 무시간적 '유형'이라는 하나의 구조적 유사법칙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구조해석은 고전으로부터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축공간이 내포하고 표현하는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구조주의는 객관적 사실기록이라는 일차적 사료로부터 그 다음단계의 해석 작업을 제공함으로써, 전통공간의 현재 상태를 풍요롭게 해주는 지혜를 제시할 수 있다.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구조란 위계(hierarchy)로 이루어진 내적 관계(internal relation)의 자율적 실체(autonomous entity)'로서 규정하였는데, 이는 유형학이 건축이론의 자율적 논리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며, 이것은 현대 유형학이 구조주의 이론의 배경 하에 생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엘름슬레우는 언어에 관하여 몇 가지로 세분해서 생각하였다. 우선 사회적인 실현이나 구체적인 드러남(manifestation)에서 떼어내 정의되는 순수형식(forme pure)을 상정할 수 있는데, 엘름슬레우는 그것을 도식(schema)이라고 부른다. 둘째, 구체적인 드러남을 여전히 고려치 않더라도 사회적 실현을 통하여 규정되는 구체적 형식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규준(norme)이라고 부른다. 셋째, 사회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관용적 언어로서 구체적인 언어 구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언어의 측면을 관용

(usage)라고 부른다.⁹⁾ 규준은 언어학에서 필요로 하는 도식과 관용의 중개적 개념으로, 유형이 기능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구조주의 제 개념들이 현대 유형학에 적용되는데, 건축공간에서의 유형학이란 사회의 역사적 공동기억의 산물(historical collective product)과 이러한 공동의식의 표현물로 정의되며,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간격을 없애는 연결체로 건축 및 설계이론으로 작용한다.¹⁰⁾

유형이란 역사적 문화적 기억의 산물이며 건축형태를 구성하는 논리적 법칙으로서, 창조의 가능성을 내포한 프로세스이며 오브제이다.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로서 유형은 형태표현으로서의 종합적 특성을 포함한다.¹¹⁾

3. 텍스트로서 전통공간표현의 구조주의적 접근

3.1. 텍스트로서 전통공간의 유형적 구조

유형학이란 다양한 것들을 어떤 범주에 넣는 것을 가리킨다. 즉 흩어져 있는 감각을 비슷한 범주와 연결시켜 종합하여 통일함으로써 인식을 탄생케 하는 것이다. 전통에 관련하여 이러한 유형화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어 모든 인식에 늘 잠재해 있는 것을 범주화하는 작업인 것이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텍스트와 현실, 언어기호와 이데올로기를 아우르는데 유효하다. 인간은 사물을 보며 의미를 부여하고 무수한 연상을 떠올린다. 이러한 무수한 의미와 연상에 있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이를 표명하는 방식은 우선 '유사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유추한데서 기인하는 세계의 의미화를 통해서이다. 體-用-相의 유추를 집단적으로 실천하면 문화가 된다. 體는 用을 통해 드러나고 用은 相을 만들고 相은 體를 품는다. 일심의 체용상은 단지 세계를 분절한 것이 아니라 용을 통해 체가 드러나고 용이 상을 만들고 상이 용을 품듯 순환적인 것이기에, 이를 통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드러내면서도 숨은 의미의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다.¹²⁾

건축실천의 과정을 동양적인 인식론으로 환원하자면 체-용-상의 三大로 개념화할 수 있다. 체는 모든 사물과 현상의 근본이다. 그것은 본질이며 주체이다. 말하자면 한 시대 또는 특정한 문화권의 건축적 원리(principle)로서, 이는 사회적 정신이기도 하고 근원적인 건축적 인식이기도 하다. 상은 체가 나타나는 현상이며 가시적인 결과다. 건축적인 범주에서는 형태와 공간으로

7) 레비스트로스의 미학이론은 단적으로 기호 속에서, 또 기호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은유법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초상화를 그리는 것도 그것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닐진대, 인물대상이 주위환경과의 관계, 자신의 역사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직업과의 관계 등에서 엮어진 기호체계를 사건과 구조와의 배합으로 잘 표현할 때, 초상화의 미학은 가능하다. 의미는 기호체계 안에서 존재한다. 김형효, op. cit., p.219

8) Ibid., pp.223-224 참조

9) Hjelmslev, Essais linguistiques, Minuit, 1971, p.80을 인용한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1998, p.125제인용

10) 정태용, 현대건축에서의 유형개념 및 유형학적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8, p.36 참조

11) Aldo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MIT Press, Cambridge, Mass, 1982, p.8

12) 철학아카데미, op. cit., pp.35-40참조

나타나는 각 건축물의 개성이며, 다른 건축물과 구별되게 하는 차연(differance)이다. 그리고 용이란 체계 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작용이며 움직임이다. 이는 다시 지역적 편차, 혹은 주어진 대지의 조건, 또는 특수한 요구 때문에 선택되는 변용(adaptation)이다.¹³⁾ 체-용-상은 분리될 수 없는 一體三面으로 어떠한 사상에 의해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구축된 건축물의 주체는 언제나 인간이며, 인간은 건축물이라는 객체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간, 생활, 공간의 관계는 시간의 경과를 거치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용을 일으킨다.¹⁴⁾

엘름슬레우는 언어적 위계를 도식언어(schema linguistique)라 하고, 위계의 결과가 언어도식과 관련할 때 그 결과를 관용언어(usage linguistique)라 하였다. 관용언어는 도식언어를 표현한다.¹⁵⁾ 구조주의 방법론적인 접근에서 틀과 변용은 기호의 두 가지 다른 측면으로 모든 기호에 공존한다. 엘름슬레우의 도식(틀, schema)/ 관용(변용, usage)은 소쉬르의 랑그(langue, 언어)/ 파롤(parole, 말)¹⁶⁾에서 진화한 것으로, 틀은 체계(system)를 이루는데 비해, 변용은 사건(event)에 관계된다.

도식언어가 언어활동의 문법서(의미형성의 규칙)의 기능을 갖는 문화성립의 구조적 속성이라면, 이는 건축공간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문화권의 건축적 원리로 대체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관용언어를 도식언어가 구체화된 것으로 개인의 발화라 한다면, 이는 건축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각각의 물리적 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언어(language)는 구체적 말(concrete utterance)을 통하여 삶으로 진입하며, 삶 또한 구체적 말(언어를 드러내는)을 통하여 언어로 진입한다.”¹⁷⁾라는 것은 “체는 구체적 상을 통하여 삶으로 진입하며, 삶 또한 구체적 상을 통하여 체로 진입한다.”라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본질의 외적 표현을 현상으로, 사물의 존재와 전개를 규정하는 내적 측면을 본질로 볼 때, 본질은 현상을 통하여 나타나며 또한 현상은 본질을 표현한다. 현상 속에 본질이 있고 상과 용 속에 체를 담고 있듯, 인식의 차원에서 본질과 현상, 형식과 실체는 화쟁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드러낸다. 체-용-상, 도식-규준-관용의 삼분법적 아우름은 삼자로 하여금 양 대

립을 해체하게 하여 삼자의 설정에 따라 의미는 여러 갈래로 전개된다. 이는 이원론이 의미에 대하여 단된 해석을 요구하는 반면 삼원론은 의미에 대해 해석의 지평을 열어 놓기 때문이다.¹⁸⁾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엘름슬레우의 구조주의 관점과 원효의 화쟁사상의 관점이 서로 대응체계를 가질 수 있으리라 보고, 서양의 구조주의체계와 한국의 고유사상인 화쟁이 공존하는 텍스트의 해석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엘름슬레우의 도식-규준-관용을 원효의 체-용-상의 개념으로 환원하여 이를 씨실로, 그리고 형식을 세분화한 전통건축공간의 품-몸-짓¹⁹⁾을 낱실로 하여 한국전통공간의 지표적 유형²⁰⁾을 구조화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품-몸-짓으로 그 특성을 분류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공간이 한반도의 자연 및 인문환경에 적응해온 유기체로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지만, 그 변화를 흡수하며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라는 의인화된 비유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은유구조와 환유구조라는 미학적 체계로 해석할 수 있는 구조적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즉, 건축공간을 유기체의 근본원리에 의하여 1차 몸을 낳고, 이러한 몸 자체와 대지 그리고 대지와 자연의 관계 속에서 작용하며, 스스로 움직여 변화를 수용하는 동적 존재로 봄으로써,

(1) 건축의 대지와 자연과의 관계를 ‘품’으로 간주하여, 경관을 끌어들이는 방식과 공간을 집합하는 방식으로,

(2) 건축공간의 물리적 실체를 ‘몸’으로 규정하여, 공간을 배치하는 방식과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3) 동적 존재의 움직임을 ‘짓’으로 보아 공간을 조직하는 방식(가변성 또는 유연성)으로 분류하여,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유형적 구조를 <표 1>과 같이 제시한다.²¹⁾

언어기호가 지시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시이고, 시 텍스트에서 외시의미(denotation)를 먼저 파악한 후 2차적으로 은유와 환유의 함축의미(connotation)를 유추하듯이,

18)이도흠,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pp.126-155 참조

19)이도흠은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에서 세계가 어떻게 의미작용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체-용-상을 품-몸-짓-참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범주는 시적창조에 관한 한,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도흠의 품-몸-짓의 용어를 차용하되 전통건축공간에 대입, 이도흠과는 다른 측면으로 사용한다.

20)“이상해, 「문화·공간도식과 한국전통건축」, 유네스코 동서건축문화 비교 국제심포지엄, 1999”에서는 한국전통건축의 계획정신인 건축적 도식을 ‘자연과 합일하는 방식’, ‘건축을 경관으로 끌어들이는 방식’, ‘건물을 배치하는 방식’, ‘건물을 집합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건축과 실내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재분류하여 체-용-상의 개념을 도입, 구체화한다.

21)전통주거공간의 사례선정 기준은, 각각의 범주가 한국전통공간의 유형이므로 하나의 건축물이 다섯 가지 범주의 특성을 모두 담고 있는 보편적 체계로 제시되어야 하겠으나, 편의상 조선시대의 주거공간에서 각각의 유형적 특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건축공간으로 대표한다.

13)김봉렬, 이 땅에 새겨진 정신, 이상건축, 1999, pp.5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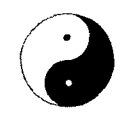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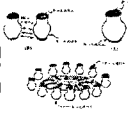
14)이중우, 전통사상과 건축공간, 건축역사연구, 1993, 통권 제4호, p.171

15)Louis Hjelmslev, 랑가쥬이론 서설, 김용숙·김혜린 역, 동문선, 2000, p.101참조, 엘름슬레우에게 있어서 도식은 언어의 본질이자 체계이며, 관용은 과정이며 산물이다.

16)‘랑그’는 언어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사회적 산물이며 관습의 총체이다. Ferdinand de Saussur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he Philosophical Library, Inc. 1966, p.9, 소쉬르는 랑그를 ‘사회적 제도’로서 생각을 표현하는 법칙이나 기호의 체계임을 언명하였다. 반면 파롤은 랑그의 객관화된 제도 안에서 표현하는 ‘개성적인 언어행위’로서 개성에 따라 각기 표현될 수는 있지만, 랑그의 체계에 복종한다.

17)M.M. Bakhtin, Speech Genre and Other Late Essays, Translate by Vern W. McGee,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986, p.63

<표 1>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유형적 구조

범주	도식(schema) :체	규준(nome) :용	관용(usage) :상
품	<p>경관을 끌어들이는 방식</p> <p>내용</p> <p>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자연과 문화는 마치 소리와 그 반향처럼 하나의 우주질서 속에서 서로 대응하며 보완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일반적으로 유교건축들은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뛰어난 경관을 얻는다. 대청에 앉으면 앞의 누각을 통해 중첩되어 나타나는 바깥의 자연경관이 장관을 이룬다. 즉 내향적 경관(off side view)보다는 외향적 경관(on side view) 구조를 우선으로 계획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관구조를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정자건축은 밖에서 쳐다보기 위한 오브제적 건축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의 경치를 감상하기 위한 프레임으로서의 건축이다.²⁰ 조망은 어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p> <p>다이어그램</p>  <p>(출전: 권영걸, 한중일의 공간조형, 국제, 2006, p.92)</p>	<p>규준(nome) :용</p> <p>조망은 'Frame of Reference'를 가지는 폐쇄적 계(enclosed system)라고 할 수 있다. '관'이라는 양모를 초입의 물풍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아 오탁한 호명산을 바라보고 있다. 농사짓는 풍경을 보는 정자'라는 뜻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관가정은 살림집인 동시에 경관을 감상하기 위한 정자다. 자연적인 경사와 높은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위계적 구성 관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좌향은 대지의 경사와 일치하는 동남향을 하고 있다. 이는 설산에서 흐르는 지세의 생기를 뒤에 있는 안채가 받는 前低後高를 길지로 보는 풍수사상과 밀접상통한다.</p>	<p>관용(usage) :상</p> <p>관가정 (출전: 시대를 담은 그림 pp.239-241)</p>  <p>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와 접촉확대 ■차경기법과 시지각적 연속성 ■정형성과 축적서 ■자연과 합일하는 건축방식 ■자연과 어우르는 방식 <p>체계</p> <p>경사지를 깎아 단을 만들고 건물을 깊숙이 얹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형국이지만, 안마당에서 중문을 열면 앞산의 모습이 정확히 중문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계획되었다.</p>
	<p>공간을 집합하는 방식</p> <p>한국전통건축은 그 자체의 기능을 위한 건축공간을 만들면서, 동시에 자연과 함께 하는 건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간집합형식은 건축적 질서와 조직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규칙적이고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제되고 생동적인 공간으로, 닫힌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주변 환경으로 열린 공간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전통 공간형식의 핵심은 정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운동 중에 있는 연속된 관계와 이들 관계로 형성된 공간의 진입에서부터 절정에 이르는 일종의 起, 承, 轉, 結을 이룬 공간의 변화와 전환에 있다.</p>  <p>조중택식당목</p> <p>(출전: 장영훈, 생활 풍수학론, 기문당, 1999, p.22)</p>	<p>단일건물과 전체, 그리고 자연과의 유기적인 전체 관계 속에서 공간을 집합하는 건축공간도식을 통하여 마당은 건축의 세밀을 묶는 역할을 한다. 건물과 문의 분립, 내외부의 연결과 확장은 내외부공간이 상호관망하는 공간집합을 이루는 논리를 형성함으로써 변화와 운동을 지닌 공간도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건물 분립은 한국전통건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특색으로써, 모든 건물배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p>	<p>선교장</p>  <p>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교적 사고에 의해 內·外, 上·下, 貴·主, 聖·俗, 세대를 구별하는 집합 형성 <p>체계</p> <p>일상과 비일상, 대가족이 사는 주택과 외부순님을 위한 주택-열화당, 동별당과 안채, 서별당, 연지당 등의 영역을 줄행랑으로 엮어 절묘하게 영역을 분리, 연결한 형식이다.</p>
품	<p>공간을 배치하는 방식</p> <p>전통공간에서 정주체계의 구성은 우주질서에의 함일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있어, 자연을 읽음은 우주질서의 이치를 헤아리는 것이고 집을 읽음은 이 이치에 부합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풍수지리설은 이러한 지혜를 집적한 원리로서 정주체계를 구성하는 실제적 지침이었다. 집이란 우주, 사회, 문화적 질서가 형성화한 소우주로 인식되었으며, 이 가치관에 의한 건축공간은 공동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질서는 삶의 근저에서 작동하는 인식의 조건이자 건조행위의 조건으로서, 공간문화의 전개에 있어 그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다. 그것은 물질성을 떠나 버린 상태에서 본질로 드러나는 어떤 것, 즉 시각적 힘이 아니라 이성적 힘이요. 이는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시·공간의 흐름을 깨닫고 있는 본질의 표현이다.</p> 	<p>주거의 배치형식은 사랑채는 전면 또는 좌측에 'ㄱ', 'ㄴ'자형으로서 외향적인 형상을 취하며, 안채는 후면 또는 좌측에 'ㄱ', 'ㄴ', 'ㄷ'자형으로 내향적이고 수렴적인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는 주역에 "陽은 앞에서 풀고, 陰은 위에서 거두어 들인다."하고 "좌측은 陽, 우측은 陰"이라 하여 각각 남녀의 위치를 상징했던 左陽右陰의 음양론에 준하는 배치형식이다. 즉 음양론적 二分法에 의한 주거 공간구성은 前陽後陰, 左陽右陰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음양오행론에서 남녀의 위치를 좌우로 상징했던 것처럼 안채가 우측에, 사랑채가 좌측에 위치케 한 것이다.</p>	<p>중효당</p>  <p>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수지리 ■좌향-좌위 향위, ■채나눔(공간의 위계) ■前陽後陰, 左陽右陰 ■禮의 형식 ■유기적 배치-공간적 質 형성 <p>체계</p> <p>동-陽-남성의 공간, 서-陰-여성의 공간으로 주택의 좌우배치질서는 유교적 삶과 오행사상에 의해 안채와 사랑채, 신분의 상하에 따라 생활공간과 서비스공간이 분리된다.</p>
	<p>공간을 구성하는 방식</p> <p>한국전통건축은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의 교차 반복을 이루고 있다. 한 채 한 채는 바로 '적극적 공간'이고 이를 둘러싼 공간은 '소극적 공간'이다. 여기서 다시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을 이룸으로써 이들은 다시 적극적 공간이 되고, 그 주위는 소극적 공간이 된다. 이처럼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이 반복 교차되면서 한 채는 그것으로 陽이 되고 마당은 그것만으로 陰이 된다. 이들이 다시 합치지면 보다 큰 陽과 이를 둘러싼 채들로 확장되어 결국은 음양의 교차 반복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공간원리는 인간이 우주의 전체적 질서와 생성 변화과정 속에서 우주의 원리에 따라 다른 사물과 교감하면서 끊임없이 조절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가정에 출발한다. 이와 같이 건축을 구성하는 토대로서 공간을 말할 때, 공간은 陰과 陽으로 이분화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공간의 성격은 이용자로서 인간에 의해 구체화된다.</p>  <p>From eleven configurations</p> <p>(출전: R.Arheim, Art and visual perception, Univ. of California, 1974, p.235)</p>	<p>마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건축공간은 기본적으로 건물과 문, 그리고 담이 한 紐가 되어 이루어졌다.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투명성의 공간개념은 마당과 자연 등 외부공간과의 시각적 관계에 따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벽의 유무, 혹은 개구부의 개폐여부에 따라 전개되는 내/외부공간의 시각적 관계는, 비어있지만 시각적 틈을 구성하는 중간 영역의 투명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Solid와 Void의 대비관계에 의한 형태적 투명성과 Void가 있음으로써 강조되는 형태적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p>	<p>운중고택 (출전: 앓과 삶의 공간 p.171)</p>  <p>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의 질서 ■휴먼스케일과 비례 ■투명성과 허와 실의 중층 반복 ■비어있는 공간, 경계의 모호함 <p>체계</p> <p>안마당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칭적 형태와 공간은 중심선을 만들어 내고, 안마당의 삼면을 에워싸는 뒷마투들의 공간은 중심점을 만든다. 중심이 있으면 공간에 서열과 위계가 생기고, 공간적次序관계를 통해 비로소 공간적 禮가 형성된다.²³</p>
품	<p>공간을 조직하는 방식</p> <p>'陰'과 '陽'은 서로 대응되는 우주론적 상징기호로서, 음양론에서 말하는 자연은 항상 陽이며 자연에 대치되는 인위적인 것들은 陰이 된다. 따라서 자연의 외부에서 바라보는 인공건축물은 정적인 陰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건물로 진입하여 창호를 모두 열어젖히면, 자연으로부터 빛의 양기를 받고 내부에 활기를 불어넣는 인간의 생명력에 의해 공간은 陽化된다. 이처럼 공간의 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陰과 陽의 성질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형태를 갖지 않은 보자기가 쓰임새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 한국전통공간 특성 중 하나인 가변성은 이 빛의 질서인 순환사상이 공간조직에 드러나는 특성이다.</p> 	<p>한옥의 공간적 특징인 '중첩과 관입'은 이쪽 방과 저쪽 방 사이의 관계를 폐쇄적 단절로 보지 않고 개방적 연속으로 정의하려는 공간관을 의미한다. 공간구성요소들의 가변화는 주로 창호의 가변성을 통해 나타난다. 내외부의 경계를 조절하는 창호의 구성기법은 개폐로 인한 공간과 공간의 통합과 분리로 나타난다. 한국전통공간은 '間'이라는 모듈시스템으로 되어있어 사용방식에 따라 방과 방사이의 문의 齋脫로 두 개의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분리하고, 한 칸을 덧달아 증축하는 유연성을 지닌다.</p>	<p>연경당</p>  <p>개념</p> <p>분합론과 가변성의 특성은 건축구조로서 필연적인 용도와 기능, 즉 채광과 통풍 및 공간의 가감 등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리적 해결을 제공한다.</p> <p>체계</p> <p>대청은 무자성적 공간으로서 방과의 연결부가 들어옴으로 열 수 있는 장치문이나 분합론으로 구성되어 모두 개방시켜 확장된 공간으로 차용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p>

꿈-몸-짓은 텍스트의 내적 구조를 문화적 맥락에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는 틀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니체는 비유적 해석을 '인간중심적 유사성'에 기초한 비유를 통하여 사물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풀이한다. 그것은 즉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속하는 것을 사물에 유비적으로 전이하는 능력이며, 자신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을 사물의 본성으로 유추하는 능력이다.²⁴⁾ 은유와 환유 의지의 실행을 통하여 언어의 보다 큰 힘을 창출한다는 것은 그에 의해 증가되는 차이와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에 의해 보다 다양한 텍스트해석의 원근법을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현대공간에 적용된 전통의 은유구조와 환유구조

문학과 예술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특한 형식을 구하여 세계의 숨겨진 의미와 진실을 드러내고 미적 감동을 주는 분야이다. 따라서 작가는 압축된 이미지 기호로 자신이 새롭게 느낀 세계를 재질서화 하여 삶의 진실을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세계를 구조로 분절하여 이를 은유와 환유를 통하여 기호로 변용시킨다.

심성의 무의식적 활동은 형식을 실질에 부여하는 데에 있고, 이런 형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심성에 있어 마찬가지로라면- 옛 심성이든 현대의 심성이든, 원시적인 것이든 문명화된 것이든- 다른 기관이나 관습이 타당한 해석의 원칙을 얻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 관습의 저변에 깔려있는 무의식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⁵⁾ 레비스트로스의 중요한 영향중 하나는 문화적 현상의 무의식적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점과, 이 무의식적 구조를 푸는 열쇠로 언어의 법칙을 들었다는 점이다.

라캉은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기표의 언어기호학에 의해서 재해석하였다. 무의식은 언어활동처럼 구조화되어 있으며, 언어의 형태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개인의 억압된 무의식이 의식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은유와 환유를 통하여 기의들을 재구성한다고 본다. 말(파롤)은 무의식

22) 김봉렬, *이땅에 새겨진 정신*, 이상건축, 1999, p.96
 23) 김봉렬, *앓과 삶의 공간*, 이상건축, 1999, p.176
 24) 한국기호학회, *은유와 환유*, 문학과 지성사, 1999, p.52 참조
 25) 장 뵘아제, 김태수 역, *구조주의의 이론*, 인간사랑, 1990, p.109 집단 무의식과 개체화에 대한 옴의 개념은 어떤 형태가 우리에게 의미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과거와 자신들을 연결시키는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다. 여기서 무의식은 '정신적인 에너지의 덩어리' 즉 원형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형 중에는 자아-우리 자신의 존재와 영혼, 개성으로 구성된 내적 마음'-가 있다. 이런 원형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선택한 환경을 통해 개성과 열망을 표현하고자 한다. 텅은 보편적인 상징의 개념 즉,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개념을 무의식과 연결시켰다. 또한 그녀는 옴의 '개체화'의 개념과 특정한 형태들에 대한 감정적입을 연결시켰다. 개체화는 개인이 무의식상태에서 자신의 의식적 생활로 이끌 수 있는 개성의 성장과정이다. 이는 한 집단의 속성이 될 수도 있다. Lang, Jon,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조철희 · 김경준 역, 건축이론의 창조, 1996, p.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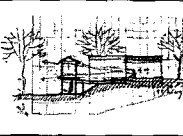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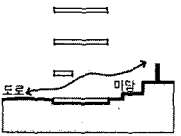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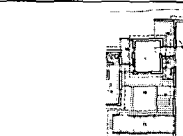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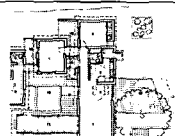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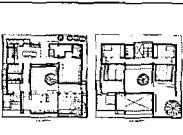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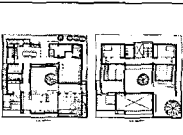
이 먼저 구조화되어 있기에 개인적 차원에서 생기는 것이다.

라캉은 "구조란 共變하는 총체를 형성하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본다.²⁶⁾ 무의식의 언어활동²⁷⁾을 해독함에 있어서 은유법과 환유법²⁸⁾은 대단히 귀중한 문법적 기초가 된다. 라캉은 은유법을 「압축」(condensation)이라고 하고, 환유법을 「치환」(displacement)이라고 명명하였다. 압축이란 무의식세계(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마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압축기 속에 넣어서 압축되면 하나의 복합적 물질이 생산되듯이, 그렇게 응축되어서 간단하지만 그 내포가 복잡한 언어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치환은 환유법 특유의 구조에 따라서 결과가 원인을 상징할 때, 또는 부분이 전체를 의미할 때를 말한다.²⁹⁾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압축은 생략, 융합(공동집합), 조합(합집합)이라는 다원결정의 절차들로서, 라캉에게 있어서 은유란 '주체의 동일화에 의한 상징적 범주'의 구성이다. 반면, 치환은 정신적 요소들(혹은 표상들)의 무게변동으로서 문법의 완벽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의미작용은 텍스트의 전체적 맥락이나 주체의 실존적인 양상을 파악한 후에 가능하다.³⁰⁾ 즉 은유가 상징적 범주에 바탕을 둔 것에 반해, 환유는 상상적 관계의 전개인 것이다.³¹⁾

26) E. Ragland-Sullivan, Jacques Lacan and the Philosophy of Psychoanalys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6, p.202
 27) 라캉이 의식적 언어에 내재하는 무의식적 효과와 의도성의 존재를 서술하기 위해 소쉬르로부터 차용한 기술적 부호가 '파롤'이다. 소쉬르의 파롤은 개인적 발화의 창조적인 무한성을 가리키는데 불구하고 랑그의 한정적 법칙에 복종한다. 반면 라캉은 파롤의 내재적 반전이라는 점으로 랑그의 법칙을 밀어낸다. 라캉은 말의 힘과 관련하여 개인적 언어의 원천에 대한 맥락적 설명을 부여한다., Ibid., p.159
 28) 은유가 연상법칙을 따라 만들어지는 기호체계임에 비해 환유는 연속법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호체이다. 은유는 다른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내고, 잘 아는 바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다. 환유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에 연결된 나머지 부분을 대표시키는 일, 어떤 것에 의해 감추어진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은유는 그 구성에 있어서 보다 상징성이 강하데 비해, 환유는 도상이나 지표에 가까운 기호다. 은유는 보다 가공적이고 초현실적 효과를 기호 사용자의 마음에 일으킨다. 이에 반해 환유는 도상이나 지표에 가까운 기호이기 때문에 기호 사용자의 마음에 현실적 효과를 일으킨다.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p.74-75
 29) 김형효, op. cit., p.233
 30) 은유는 낱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부와 술부가 이어지면서 발생한다. 환유는 기호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은유는 말(discourse)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은유는 말을 통해 한 번 꼬여서 간접으로 무엇을 겨냥한다. 여기서 의미의 혁신이 일어나며 뜻이 넘쳐 퍼진다. 말이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도 은유는 뜻하는 사건이다. 한국기호학회, op. cit., p.17, 29, 149 참조
 31) 라캉의 상상계는 거울이미지, 동일시, 상호작용의 계이다. 상상계에서는 자아를 탄생시켰던 원래의 동일시적 과정이 사람과 사물이라는 외부세계와 그 개인의 관계를 통해 반복되고 또 강화된다. 이 때 개인은 동일성, 유사성, 자기복제성의 많은 사례들을 자기에게 집중하여 '자기자신'이 되고 싶어하고 또 그 상태에 머무르려 한다. 상상계는 고정보다는 유동, 유사성보다는 상이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의 영역이다. 이것은 언어의 영역, 무의식의 영역, 타자로 남아있는 타자성의 영역이다. 이것은 자아와는 다른 주체가 탄생하는 곳이고, 또 그렇게 탄생한 주체가 늘 분리되고 중단되는 존재의 양태를 획득하는 곳이다. 상상계에서는 "부제라고 추정되는 바탕 위에서만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으며, 존재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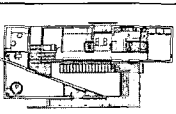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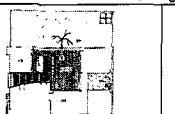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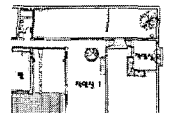



<표 2> 현대적 변용의 은유구조와 환유구조

범주	은유구조(암축)				환유구조(치환)				
경관을 결어는 방식	은유구조(암축) 임거담, 김효만				환유구조(치환) 미제루, 방철린				
	규준(norme) : 용		관용(usage) : 상		규준(norme) : 용		관용(usage) : 상		
	<p>도로와 주거와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답장을 설치할 수 없는 일산 전용주거단지의 규정에 의해, 임거담은 도로를 향해 개방됨과 동시에 은신처로서의 프라이버시 기능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도시와 주택을 연결하는 완충적 공간으로서의 '마당',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을 제공할 자연으로서의 전통개념인 '마당'을 도입함으로써 외부의 경관을 내부로 끌어들이다.</p>		<p>필로티(樓)는 그 하부의 트임으로 대지를 도로에 열어 도시와 건축을 시각적으로 상호관입하게 하며, 동시에 담장 없이 도로와 대지를 공간적으로 구획해 줌으로써 안마당을 포근하게 감싸는 공간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p>		<p>개념</p> 		<p>개념</p> 		
<p>은유체계</p> <p>임거담에서 '마당'과 '우트임'은 대지를 도로에 열은 대지 및 담장을 할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경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요소로서, 현재성 있는 전통건축 방식의 은유적 표현이다.</p>		<p>은유체계</p> <p>건축과 자연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개별성과 전체성이 교차작용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비고정적인 관계적 실체를 구성하는 시·공간 개념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지형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저 차에 의한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안과 바깥에서 건축구조를 관통하여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수직적, 수평적 관입의 전통적 외부공간의 속성이 무한한 연속성을 가지고 프레임화되며, 중첩된 회화적 연속성이 '마당'과 '樓'의 도입과 함께 공간적 맥락의 뿌리가 되고 있다.</p>		<p>개념</p> <p>미제루는 현대건축 형태와 전통 자연관이 어필할 수 있는가에 관한 해석으로, 프레임 속에서 풍경이 삽입된 구조로서 자연은 공간 속에 투영되는 구조를 갖는다.</p>		<p>환유체계</p> <p>공간적 표현은 자연의 순환원리가 공간 구성원리에 적용된 것으로, 공간은 자연과 단절되는 관계가 아닌 합일하는 관계로서, 이 장소는 자연에 대한 '제2의 경관'이라는 관조성의 환유구조를 내포한다.</p>			
공간을 집합하 는 식	가가불이, 이일훈				미제루, 방철린				
	규준(norme) : 용		관용(usage) : 상		규준(norme) : 용		관용(usage) : 상		
	<p>가가불이는 도시형에서 시도한 '채나눔' 형식의 다가주택이다. 대지의 형상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전체구성에 있어서 가운데를 비움으로써 채광과 환기를 배려하도록 매스를 서로 분리해 놓은 형식이다. 가가불이는 주도로가 북쪽과 서쪽으로 면해서 채광과 소음, 시선처리 등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기 때문에, 남쪽에 면한 가운데를 파고 그 파인 부분을 이용해서 각 방들의 환기와 채광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넓은 땅에 펼쳐진 '채나눔'의 형식과는 또 다른 밀집된 도시형 평면에서의 나눔의 방식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다.</p>		<p>개념</p> 		<p>개념</p> 		<p>개념</p> 		
<p>은유체계</p> <p>임대가구끼리의 구별, 주민사회의 외부를 거쳐 진입하는 형식을 통해 '채나눔'의 개념의 실현으로, 주택단으로 수직동선의 추축을 잡고, 각 층은 다시 두 덩어리의 공간으로 나뉘도록 구성된다. 독립된 채의 서로 다른 출입문은 두 채가 공존하면서도 독립성을 존중받고 있음을 암시한다.</p>		<p>은유체계</p> <p>가가불이의 공간체계는 평면 중앙의 비워진 공간과 양쪽의 채워진 내부형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두 덩어리 중 한 덩어리는 내부의 별도 집결다리 계단으로 연결되는 한 덩어리는 외부로 나가서 연결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됨으로써, 전통 공간의 집합방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p>		<p>개념</p> <p>전통주거개념의 중정주택의 진입부를 대지의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여 누하진입으로 유도하여 그 상부를 정자개념을 도입, 주택의 경계 뿐 아니라 관광을 위한 장소가 된다. 현상학적으로 보았을 때 미제루는 3개의 영역이 마당을 중심으로 엮리면서 상호 침투하는 'ㄷ'자 형식을 취하고 방들은 개별적 공간으로 존재하면서 고리형식으로 상호공간을 이어주고 있다. 지형이 지고고 있는 고저차를 이용하여 남북방향으로는 공간의 커를 이루고 있는데, 전면부의 누각과 후면부에 열려진 마당, 그 뒷편에 안방을 배치, 뒷편으로는 원시자연과의 사이에 가벽을 설치하여 직접적 접촉을 피한다.</p>		<p>개념</p> <p>주택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전제된 공간배치, 실내공간과 외부공간과의 필연적 관계형성, '채' 개념의 현대적 변용 등 한국적 공간구성의 집합원리들을 중시하는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평면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경사지붕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집합성을 이루고 있다.</p>		<p>환유체계</p> <p>중심부의 마당을 중심으로 주변의 커에 프로그램을 실로 배치하여 실들의 바깥 커에 대한 땅과 실내공간이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는 건축 내부공간의 집합은 無爲 개념의 공간화로서, 사람-자연-건축 관계의 호흡이 라는 전통의 환유구조를 암시하는 공간체계이다.</p>	
공간을 배치하 는 식	한호재, 민규암				필담, 정현화				
	규준(norme) : 용		관용(usage) : 상		규준(norme) : 용		관용(usage) : 상		
	<p>한호재는 본채와 별채로 구성된 전원주택으로, 각 공간이 모두 외기에 면함으로써 최대한 자연과 접촉하면서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유도한다. 이 주택의 배치방식은 전통건축에서 사랑채인 독락당과 계곡사이에 담장을 설치하듯이, 평평한 대지에 담을 형성시키고 그 내부에 평면을 배치함으로써 대지의 서측면과 전면부는 개울에 감싸여진 수평적 구도를 하고 있다. 전통주거의 관조적이고 위계적이며 가치론적 측면과 현대주거의 기능적이고 실리적인 현실적 측면의 대조가 상호의존적으로 융합되고 있다.</p>		<p>개념</p> 		<p>개념</p> 		<p>개념</p> 		
<p>은유체계</p> <p>은유에서 발생하는 의미는 그림이 일으키는 사실이다. 은유는 표상언어가 개념언어화되어 앞의 세계로 들어오는 텍스트로서 사변언어와 연결되어 논리를 낳는다. 한호재의 공간체계는 총체적인 내적 통일성에 의해 전통의 선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시간과 기억 및 공간자체에 대한 관념을 확장시킨다.</p>		<p>은유체계</p> <p>공간에 구체적인 기능 이외의 시적 프로그램이 개입되면 일상성과 비일상성이 중첩되어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된다. 필담은 본채와 별채로 구분되는 전통주택의 배치계획을 현대화한 것이다. 전통주택에서 기능을 미리 확정하지 않은 방법론을 도입하고, 현대주택에서의 거실, 서재와 침실 등의 분류를 혼란하여 현대도시 주거생활에 맞게 해체하고 적절하게 변용하여 새로운 공간적 영역으로 재편하고 있다. 우선 마당과 마당들이 서로 고저가 다른 단을 형성, 여기에 다시 초와 畵의 관계를, 기단의 고저 차이를 이루게 함으로써 한국건축공간의 위계성을 표현한다.</p>		<p>개념</p> <p>기본적인 공간가치의 틀은 전통주택을 따라 여성과 남성의 영역으로 부분적 재현으로, 안채와 마당을 가운데 주고 대등하게 마주한다. 마당은 전통마당의 공간적 감각을 이어받고 있어, 에워싸고 있는 방들과의 공간적, 시각적, 기능적 관계에서 새로운 창조성을 부여하고 있다.</p>		<p>환유체계</p> <p>사랑채를 마당보다 높은 전통주택의 사랑방과 사랑마당과의 공간관계의 부분적 재현으로, 안채와 마당의 적절한 관계정립이라는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하나의 장 속으로 끌어들이는 암시적 표현구도를 보인다. 이는 마당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흐름들의 짜임새들에 대한 암시적 환유구조이다.</p>			

환유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인접성에 기초한 유사성으로 인해 부분을 통해서 전체의 오브제로서 직접적으로 지각된다. 반면 은유의 이미지들은 그 원본이 잠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하여 인지해야 하는 것이고,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사유해야 하는 것이다.

라캉은 억압에 의한 무의식의 형성이 '은유'라는 언어현상과 같은 구조에 의해 성립된다고 보고, "무의식은 언어에 들어있는 논리적인 의미"로 간주한다. 라캉의 은유의 공식은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표가 다른 기표로 은유적 대치를 하는 기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없음으로써 존재한다.", 팻컴 보위, 라캉, 이종민 역, 시공사, 1999, pp.140-141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	평심정, 우경국		수출당, 승효상			
	기준(norme) :용	관용(usage) :상	기준(norme) :용	관용(usage) :상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	<p>평심정은 공간의 기본으로서 요구되는 기능을 조직화하는 개념을 배제하고 시간에 따른 행위의 점거라는 시간개념을 공간체계로 구축하는 시공간적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 이로써 설정된 영역 내에 최소한의 분리만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가변적으로 처리하여, 사용자의 의지에 따른 행위의 자유를 확보케 한다. 공간의 고착이 아닌 비선형적 흐름을 부여하는 전통공간 순환성의 유형화로서, 이것은 한 공간에 위치한다는 것이 그 공간의 점거가 아닌 순환의 과정에 존재함을 의미한다.</p>	 <p>개념</p>	 <p>은유체계</p>	<p>수출당은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마당'의 실현을 통해 극적인 외부공간의 전개를 시도하였다. 전통주거의 마당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심리공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크기로 이루어져 있음에 근거하여, 비워져 있는 것은 둘러싸여져서 '비워져있는 내부'로 수용되면서 공간은 그 마당 폭과 건물 높이 사이의 비례에서 중정으로부터 쾌적하고 편안한 폐쇄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서 마당은 단순히 관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교의 중심이며 공동체를 발견케 하는 공간이 된다.</p>	 <p>개념</p>	 <p>환유체계</p>
	<p>담을 따라 시작된 동선과 공간체계는 자연의 순환체계(내부화된 외부공간)와 교차, 중첩되면서 선형적인 공간의 단조로움을 벗어나게 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구성을 실현한다.</p>	<p>마당을 경계로 하되 데크에 의해 연결되는 사람과 안채는 막혀있되 열려있는 한옥을 암시하며, 시각에 따라 다채롭게 들어오는 병치된 공간의 표현적 잠재성에 의해 시공간 속에서 동적 계도에 의존하는 시적 감수성의 체계로 변화된다.</p>	<p>마당은 독립성과 독자적 고유기능을 가진 내부이자 외부공간이며 공간의 기능과 환경을 변환하고 조절하는 공간 상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적극적인 공간이다. 이는 공간간의 유동적인 작용들과 새로운 질서를 생산하는 생성적 구조이다.</p>	<p>환유적 표현은 시니피앙들을 결합하는 연결관계를 찾는 정신적인 경로를 취하게 되므로 그 의미작용은 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에 의존한다. 수출당은 마당의 삽입, 틈의 공간화, 여백에 대한 감수성, 무위자연적 관념에 대한 공간적 텍스트이다.</p>		
공간을 조직하는 방식	수백당, 승효상		임거당, 김효만			
	기준(norme) :용	관용(usage) :상	기준(norme) :용	관용(usage) :상		
공간을 조직하는 방식	<p>가변성은 공간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닌 원심성과 구심성을 지닌 공간조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수백당은 원심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다른 공간에 종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다른 세계로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흐름들의 초점, 방향 그리고 짜임새를 교묘히 처리함으로써 전체를 연속되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장소속으로 끌어들이는다. 이러한 공간적 장치는 부분의 움직임으로 공간적 가변을 유도하는 조건들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적 질서를 구축한다.</p>	 <p>개념</p>	 <p>은유체계</p>	<p>한식 점어들개문은 내외부 공간을 일체화할 수 있는 도구이다. 임거당의 정자와 옥상대청마당 상부의 햇볕조절 차양의 고정방식은 서까래의 결쇠에 걸린 전통의 멋을 계승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디테일의 선택은 현대적 기능과 감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현재성을 가진 요소들로 전통에 대한 기억을 환유적으로 불러일으킨다. 환유는 그림언어이며 감각언어이다. 따라서 이미지를 발상하며, 그 이미지(像)가 일으키는 운동은 생각(思)이다. 환유적 구조로서 점어들개문의 형태적 표현은 전통공간조직의 함축의미를 전달한다.</p>	 <p>개념</p>	 <p>환유체계</p>
	<p>'守白堂'의 비움을 지키는 집이라는 이름처럼 '방안의 방'과 '방밖의 방'들은 하나의 공간이 다른 공간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공간이지만, 때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또 다른 영역을 만드는 전통공간시스템의 물적 조절이다.</p>	<p>은유의 혼적과 이 혼적이 함축하는 역사성은 무의식이다. 은유는 자신의 무의식적 본성에 내재하는 도식을 통하여 자신의 역사성을 투사한다. 수백당은 공간조직의 변위를 통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전통공간의 내포의미를 은유적으로 지시한다.</p>	<p>고체물질들을 용해한 투명물질의 초월성을 통해 전체이미지는 전통의 정서를 현재의 시간체계에 삽입하고자하는 유동적 욕망을 구현한다. 환유의 혼적은 철학의 자기위식과 정체성 자체를 조건짓는 역사성을 의미한다.</p>	<p>환유적으로 지시된 의미는 궁극적으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려는 운동 속에 놓여있다. 임거당의 공간조직방식은 시간과 공간이 점유하는 상황에 반응하여 형태적 배열에서 생성된 암시들을 부여하는 도상적 환유의미를 내포한다.</p>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유관계에 있는 기표들의 연쇄고리를 찾아가면 최초의 의미가 밝혀지는 것처럼, 무의식의 의미도 의식적인 언어로 나타난 숨겨진 은유적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에게 이 무의식적 언어는 인간의 모든 의식적 언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전통의 현대화란 전통의 기표를 다른 기표로 은유적(또는 환유적) 대치를 하는 행위인 것이다. 건축 공간은 작가와 사용자 사이에 사회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잠재적 심리인 무의식이 표출되는 꿈과는 다르다. 그러나 공간의 계획이 사용자의 지각과 인지작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면에서, '무의식'의 개념의 도입은 공간의 '생산'과 '수용' 모두를 포괄하는 작가의 의도적 표현전략이 될 수 있다.

물리적 대상이 인간의 마음에 이미지를 인각하는 의미작용은 지각(perception)작용으로, 물리적 대상의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마음에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의미작용은 인지(cognition)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에 의해 은유와 환유를 공간적 논리에 적용하면, 은유(압축)는 지각적 유사성보다는 인지작용에 호소하는 암시적 추상화과정으로, 그리고 환유(대체)는 지각작용에 근거한 시지각적 유사성을 지시하는 부분적 도

상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하여도 '체'는 전통공간의 변치 않는 정신계이므로 '용'과 '상'의 변용을 고찰하되, '체'의 공간개념을 은유구조와 환유구조의 텍스트로 해석한 현대공간의 사례분석을 <표 2>로서 제시한다. 제시된 공간들은 한국인의 정서와 생활양식의 고유성이 내재한 도시주거와 전원주거공간으로, 90년대 이후의 디자인으로 한정한다.

4. 결론

'전통의 계승'이란 과거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세대들로부터 물려받은 산물의 '구조'를 잃지 않으면서 시간이 증첩되어 쌓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가다머(Gadamer)의 해석학에 의하면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의식의 지평융합에 의해서, 즉 떨어져 있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 성립되는 대상과 표상들의 교차에 의해서 두 의식사이의 원격소통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은 구조를 통하여 '통합'하고, '동화'하고, '同視'하며, 이렇게 하여 낮은 것을 자기 동일화한다.

한국전통의 고유의식은 현대의 삶에도 집단무의식으로 작용한

다. 본 연구는 삶의 체계로서 무의식적으로 유형화되어 내재된 전통 관념이 현대공간에 표현되는 통로로서 은유와 환유체계를 라캉의 이론을 통하여 그 논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전통공간'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은유와 환유의 무의식적 구조로 고찰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공간의 유형적 규약은 전통의 현대공간 이미지를 해독하기 위한 열쇠이자 코드이다. 따라서 구조주의의 유형학적 관점은 전통공간의 특성에 관한 추상적이고 파편화된 관념들과 사본들을 현실로 엮어주고 풀어주는 논리적 관점이 될 수 있으며, 과거를 표상하는 방식으로서 전통을 재현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의 하나로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전통공간 유형해석체계로서 엘름슬레우와 원효의 이론은 구조주의 맥락에서 유용하다.

둘째, 전통건축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은유와 환유는 살아있는 텍스트로서 여러 갈래의 의미를 펼쳐놓는 표현수단이 될 수 있다. 은유와 환유에서 전개되는 공간적 창조력은 기표의 고정성으로부터 텍스트의 의미세계에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시퀀스 내에서 전통을 새로운 현실로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은유와 환유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언어체계로서, 이들을 통하여 디자인하고 해석하는 것은 감추어진 뜻을 입려하고 해독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무의식을 사유하는 것이고 전통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전통의 유형해석은 이미 존재했던 원형들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형 그자체가 아니라 유형학적 구조로서 어떻게 원형을 변용시키는가이며, 변용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개념과 그 실현의 과정일 것이다.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가인 그라시는 디자인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고전언어의 원형이 지니는 역사적 권위에 대하여 "여기서 가능한 형태의 세계는 -디자인 분야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무한한 연결을 진행시킨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다. 형태의 세계는 과거의 배경에 대항해서만 그 자체를 드러내며,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모방의 상태에서만 실체화된다. 이것은 항수적인 행동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사유함으로써 이해되는 것이다."³²⁾

역사는 전통의 자기의식과 정체성 자체를 조건 짓는 구조적 시간에 해당한다. 전통의 흔적은 역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은 한 문화권에 내재하는 특정한 구조적 동일성과 하나를 이룬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엘름슬레우, 원효, 라캉의 이론을 구조주의라는 맥락에 도입하여 한국의 공간적 정체성의 '무의식적 흔적'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가능성을 제시한, 하나의 이론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고위공, 텍스트와 형상, 미술문화, 2005
2.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미건사, 1998
3. 김봉렬, 시대를 담는 그릇(한국건축의 재발견1), 이상건축, 1999
4. 김봉렬, 삶과 삶의 공간(한국건축의 재발견2), 이상건축, 1999
5. 김봉렬, 이 땅에 새겨진 정신(한국건축의 재발견3), 이상건축, 1999
6.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1989
7. 김호만, 임거당, 시공문화사, 2000
8.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1998
9. 우경국, 평심정, 시공문화사, 2000
10. 이도훈,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11. 이일훈, 가가불이, 시공문화사, 2000
12.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13. 이홍우, 한국적 사고의 원형, 고려원, 1988
14. 철학아카데미, 기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소명출판, 2002
15. 한국기호학회, 언어와 기호, 문학과 지성사, 1999
16. 한국기호학회, 은유와 환유, 문학과 지성사, 1999
17. 미셸 아리베, 언어학과 정신분석학-프로이드, 소쉬르, 엘름슬레우, 라캉을 중심으로, 최용호 역, 인간사랑, 1983
18. 아사다 아키라,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이정우 역, 새길, 1995
19. 움베르토 에코, 해석이란 무엇인가, 손유택 역, 열린책들, 1997
20.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21. 폴 리피르,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박병수·남기영 편역, 아카넷, 2004
22. C.K. Ogden, I. A.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0
23. Eiiie Ragland-Sullivan, Jacques Lacan and the Philosophy of Psychoanalys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6
24. Georgia Warnke, Gadamer: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25. Hirschfield, Lawrence A., Susan A. Gleitman. Mapping the Mind: Domain Specificity in Cognition and Culture. Cambridge, 1994
26. Honeck, Richard P., Robert R. Hoffman. Cognition and Figurative Language. Hillsdale/NJ: Erlbaum, 1980
27. Hugh J. Silverman, Gadamer and Hermeneutics, Routledge: New York, 1991
28. Kearney, Richard, Paul Ricoeur : The Hermeneutics of Action, London ;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1996
29. Lacan, Jacques, The Spirit Between the Eye and Gaze, in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NY: W. W. Norton, 1989
30. Martindale, Colin, Cognition and Consciousness (The Dorsey Series in Psychology) Homewood, Ill: Dorsey Press, 1981
31. M.M. Bakhtin, Speech Genre and Other Late Essays, Translate by Vern W. McGee,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986
32. Pavio, Allan, Mental Representations: A Dual Coding Appro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33. Richard Kearney, On Paul Rocoer, MPG Books Ltd, Bodmin, Cornwall, 2004
34. 노동성·홍대형, 관가정의 건축공간 구성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12
35. 도홍호, 유학적 생활규범에 의한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8.1
36. 박경애·허범팔, 퍼이스의 기호학에 의한 한국전통공간디자인의 삼원론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5. 6
37. 이상해, 문화·공간도시와 한국전통건축, 유네스코 동서건축문화비교 국제심포지엄, 1999. 10. 7
38. 정태용, 현대건축에서의 유형개념 및 유형학적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8
39. 현대주택, 2002. 09, 2003. 03, 테코저널, 2006. 05

<접수 : 2006. 4. 28>

32)Klotz, Heinrich, 양동양 편역, 현대 건축론, 기문당, 1995, p.233